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부모관련 스트레스 및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 슬 기¹⁾

방 회 정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및 근교 소재 초등학교의 5, 6학년 4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이라는 개인적 요인, 부모관련 스트레스라는 가정맥락과 또래지지라는 학교맥락에서의 사회적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성차는 또래지지에서만 나타나서,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또래지지가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낙관성이 증가할수록 부모관련 스트레스 고/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또래지지 고/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차이 또한 낙관성이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주관적 안녕감

* 본 논문은 201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석사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hjbang@ewha.ac.kr)

I. 서 론

현대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점차 행복이나 안녕감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렇듯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병리, 약점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강점이나 안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며(Frisch, 2000; Keyes, 1998)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행복에 대한 연구는 행복감, 주관적인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용어로 접근되어 왔다. 특히 경제적 지표나 사회적 지표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삶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김명소, 한영석, 2006; Alexandrova, 2005),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는(Diener, Diener, & Tamir, 2004)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Diener(1984)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행복에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의 행복에 있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이같은 시대적, 학문적 흐름 속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쏟아졌는데, 대부분이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아동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2006년 통계청 보고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동들이 경험하는 삶의 주관적 만족도가 35.9%인 것으로 나

타나서, 생활 전반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가 의외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2-14세 아동의 9.8%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아동도 8.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아동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기에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학적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여러 영역에 걸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그리고 자신의 기능에 대해 되돌아보고 가치를 부여하고 종합한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내리는 평가 혹은 선언을 의미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뜻하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높은 성격 요인이 외향성, 자존심, 개인적 통제감, 낙관성으로 밝혀졌다(Scheier & Carver, 1985). 특히 낙관성은 현재 혹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사건을 낙관적으로 귀인하는 특성으로 개인 내적 보호요인으로 다루어져 개인의 적응 과정 및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심리적 변인이다(도인종, 이양희, 2008; Scheier & Carver, 1985).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임상 집단, 대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개인적 요인인 성향적 낙관성이 상황 특정적이라기보다는 시간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란(Scheier & Carve, 1992) 점에서,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개인적 변인을 넘어서서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기는 사회적 지지가 더 필요한 발달 시기라는 점에서 사회적 요인들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발달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적응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들로 사회적 지지와 부모관련 요인을 들 수 있다(이정미, 이양희, 2007). 우선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와 대처능력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의 수준을 완화하고 부적응 행동의 발현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한미현, 유안진, 1996). 특히 아동기는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또래가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으로 대두하는(Feiring, & Lewis, 1989) 시기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또래관계에 상당히 민감해지게 된다(박성연, 강지훈, 2005). 그럼에도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사회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으나 특별히 이 시기의 또래지지에 초점을 두고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본 연구들은 상당히 드문 편이다. 또한 양돈규(2001)의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낙관성을 증진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아동 개인의 낙관적 수준이 낮더라도 부모나 또래와 같은 사회적 지지 체계가 긍정적

이라면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또래 지지가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기의 주관적 안녕감 문제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근래 아동들의 일상 스트레스도 아동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복지감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한미현, 유안진, 1996; Dubow & Ulman, 1989). 아동의 스트레스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Elkind(1981)는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부모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하영과 유안진(1998) 연구에서도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의 주관적 안녕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부모관련 스트레스 영역을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탐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낙관성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한주리와 허경호(2005)의 연구결과를 볼 때, 낙관성 수준에 따라 부모관련 요인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양돈규(2001)의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 체계 중 하나인 부모가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한다면 낙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관련 요인 중 스트레스가 낙관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이라는 개인적 요인, 부모관련 스트레스라는 가정 맥락과 또래지지라는 사회관계 맥락에서의 사회적 요인의 설명력을 통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개인 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안녕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요인들에 근거한 중재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주관적 안녕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주관적 안녕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넷째,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또래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의 설명력을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및 근교 소재 초등학교의 남녀 5학년과 6학년 아동이다. 총 500부의 설문지 중에서 미 응답한 32명과 불성실하게 답한 26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4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년은 5

학년이 192명(43.4%), 6학년이 250명(56.6%)이었고, 남학생 226명(51.1%)이었고 여학생이 216명(48.9%)이었다.

2. 측정도구

낙관성

아동의 낙관성 측정은 YLOT(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를 김주용, 이지연(2007)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YLOT는 Scheier와 Carver(1992)가 낙관성과 비관성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LOT(Life Orientation Test)를 Sydney 등(2005)이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일반적인 낙관성 측정 도구로 총 14문항이며 낙관성 측정 12개 문항과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허위문항(Filler item) 2개(문항 1, 2)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 측정 12개 문항은 각 6개의 긍정적 진술문항과 부정적 진술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여 채점되고 허위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낙관성 총점의 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48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성향적 낙관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김주용, 이지연(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이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측정은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관련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Felner와 Rowleson(1989)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인 Daily Hassles Questionnaire (DHQ), Shrout와 Dohrenwend(1985)의 Hassles Dimensions, Lempers와 Clark-Lempers(1997)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 그리고 국내 선행 연구들(류수영, 1994; 윤혜정, 1993; 천민필, 1994; 최창호, 1993; 한미현, 1996)을 기초로 한국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 ‘별로 받지 않는다’(2점), ‘약간 받는다’(3점), ‘많이 받는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부모관련 스트레스 총점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까지의 점수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초등학교 3, 6학년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이다.

또래지지

아동의 또래지지 측정은 Dubow와 Ulman (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수정·보완한 척도 중 또래지지에 해당하는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Likert 5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명확하게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지 않다’(2

점), ‘약간 그렇다’(3점), ‘정말 그렇다’(4점)의 4점으로 구성하였다. 2번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이므로 역점수로 환산하여 처리하였고 또래지지 총점의 범위는 최저 8점에서 최고 32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 6학년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또래지지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이다.

주관적 안녕감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측정은 박병기와 송정화(2007)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1984, 1996), Diener와 Lucas(2003), Diener 등(2004), Ryff(1990), 그리고 Ryff, Keyes와 Shmotkin(2002)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을 참고하여 개발한 박병기와 홍승표(2004)의 척도를 수정·축소·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하위요인(정적 효능안녕, 부정 효능안녕, 정적 정서안녕, 부정 정서안녕, 정적 관계안녕, 부정 관계안녕) 중 긍정적 요인의 정적 효능안녕, 정적 정서안녕, 정적 관계안녕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만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Likert 6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동이 보다 명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4점으로 구성하였다. 정적 주관적 안녕감 총점의 범위는 최저 11점에서 최고 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병기와 송정화(200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과 고등

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적 주관적 안녕감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5.0K for Windows를 이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고,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또래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의 설명력을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낙관성과 부모관련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변수, 낙관성과 또래지지와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의 낙관성 평균 점수는 34.50($SD = 6.26$)이었으며,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41.11($SD = 13.80$), 또래지지의 평균 점수는 24.35($SD = 4.99$),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 점수는 31.77($SD = 6.32$)이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Pearson 적률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r=.67, p<.001$), 다음으로는 또래지지와 주관적 안녕감($r=.65, p<.001$)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지지와 낙관성에서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r=.48, p<.001$). 한편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다른 모든 변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낙관성($r=-.41, p<.001$), 주관적 안녕감($r=-.31, p<.001$), 또래지지($r=-.23, p<.001$)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표 1. 주요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442$)

측정변인	가능한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낙관성	12-48	34.50	6.26
부모관련 스트레스	20-80	41.11	13.80
또래지지	8-32	24.35	4.99
주관적 안녕감	11-44	31.77	6.32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1. 낙관성	-			
2. 부모관련 스트레스	-.41***	-		
3. 또래지지	.48***	-.23***	-	
4. 주관적 안녕감	.67***	-.31***	.65***	-

*** $p<.001$

나타났다.

2. 주요 변인에서의 성차

각 변인에 대한 성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또래지지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79, p<.01$). 즉 여자가 남자에 비해 또래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관련 스트레스,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에서는 유의미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3.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의 설명력에서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또래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의 설명력을 조절

표 3.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N=442$)

측정변인	남자	여자	t
	($N=226$)	($N=21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낙관성	34.43 (6.02)	34.56 (6.51)	-2.22
부모관련 스트레스	40.78 (12.89)	41.45 (14.71)	-.51
또래지지	23.71 (4.97)	25.02 (4.94)	-2.79**
주관적 안녕감	31.58 (6.18)	31.98 (6.47)	-.66

** $p<.01$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낙관성을 1단계에 투입하였고,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또래지지와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2단계에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항을 3단계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공차한계는 .03~.83, VIF는 1.21~67.31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 변환(mean centering)을 통해 공차한계는 .65~.90, VIF는 1.11~1.53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표준화 계수(B)를 비교했는데 이는 표준화계수인 베타(β)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한 것이므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단순기울기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Barron, Frazier, & Tix, 200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로 투입된 낙관성 변인은 주관적 안녕감 변량의 44.2%를 설명하였다($F(1, 440)=348.75, p<.001$). 2단계로 투입된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또래지지 변인은 주관적 안녕감을 추가적으로 14.5% 더 설명하였다($F(3, 438)=207.57, p<.001$). 그리고 3단계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인들은 추가적으로 1%를 더 설명하였다($F(5, 436)=129.41, p<.001$). 즉 낙관성과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B=.01, \beta=.08, p<.05$)와 낙관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 효과($B=.02, \beta=.10, p<.01$)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전체모델의 총 설명량은 59.7%이었다.

표 4.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442)

준거변인: 주관적 안녕감							
모형	예측변인	B	SE	β	t	R ² (adj-R ²)	F
1	(상수)	-.09	.23		-.40	.442	348.75***
	낙관성	.67	.04	.67	18.68***	(.441)	
2	(상수)	-.18	.19		-.94		207.57***
	낙관성	.45	.04	.45	11.88***	.587	
	부모관련 스트레스	-.01	.02	-.02	-.68	(.584)	
	또래지지	.55	.04	.43	12.35***		
3	(상수)	-.26	.22		-1.20		129.41***
	낙관성	.43	.04	.43	11.36***		
	부모관련 스트레스	-.01	.02	-.02	-.48	.597	
	또래지지	.58	.05	.46	12.86***	(.593)	
	낙관성 × 부모관련 스트레스	.01	.00	.08	2.38*		
	낙관성 × 또래지지	.02	.01	.10	2.94**		

* $p < .05$, ** $p < .01$, *** $p < .001$

a. 예측값: (상수), 낙관성

b. 예측값: (상수),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c. 예측값: (상수),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낙관성×부모관련 스트레스, 낙관성×또래지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과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효과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상호작용효과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의 형태를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Aiken & West, 1991).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과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구체적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회귀방정식은 $y = (b_1 + b_3Z)x + (b_2Z - b_0)$ 에서 b_1 은 예측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_2 은 조절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

수, b_3 는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_0 는 상수 값, Z 는 조절변인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먼저 회귀방정식의 Z 값에 조절변인인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최대값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더한 값을 넣고, 최소값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값을 넣어 부모관련 스트레스 고/저 수준에 따른 두 개의 회귀식을 만들었다. 저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회귀방정식은 $y = 4.82X - 0.84$ 이었으며 고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회귀방정식은 $y = 2.61X - 0.29$ 이었다. 이에

예측변인인 낙관성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를 뺀 값과 평균에서 1표준편차 더한 값을 회귀식의 X값으로 넣어 좌표를 만들었고(낙관성의 최소값= 28.24, 최대값= 40.76)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회귀식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저 부모관련 스트레스 회귀식의 기울기가 4.82로 고 부모관련 스트레스 회귀식의 기울기인 2.61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성 수준이 낮은 경우($X=28.24$) 낮은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아동($Y=135.28$)은 높은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아동($Y=73.42$)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또한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X=40.76$) 낮은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아동($Y=195.62$)은 높은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아동($Y=106.09$)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그 양상을 보면 낙관성이 증가할수록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고/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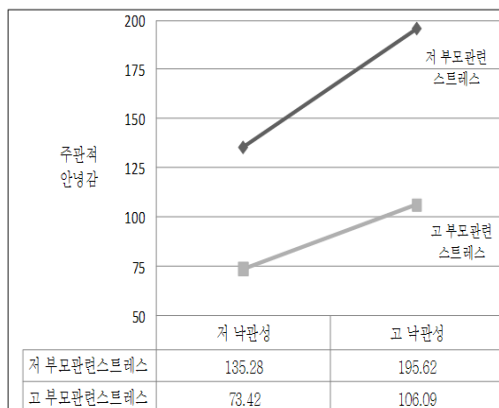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과 또래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과 또래지지의 구체적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Aiken과 West(1991)가 제안했던 방법으로 회귀방정식을 구하여 도식화하였다. 고 또래지지의 회귀방정식은 $y=3.37X+9.16$ 이었으며 저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회귀방정식은 $y=2.37X+13.76$ 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좌표를 만들었고(낙관성의 최소값= 28.24, 최대값= 40.76) 이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회귀식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고 또래지지 회귀식의 기울기가 3.37로 저 또래지지 회귀식의 기울기인 2.37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성 수준이 낮은 경우($X=28.24$)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Y=108.93$)은 또래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아동($Y=76.09$)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또한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X=40.76$)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Y=151.12$)은 또래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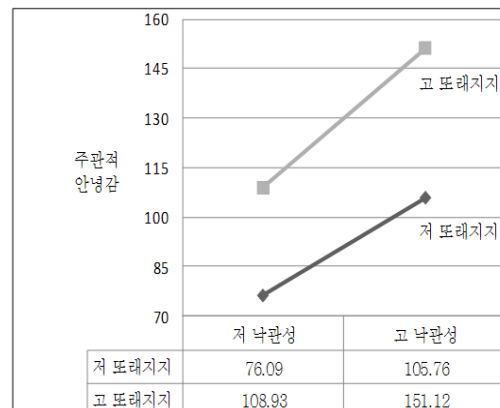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Y=105.76$)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그 양상을 보면 낙관성이 증가할수록 또래지지의 고/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442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주관적 안녕감 각각에 대한 성차 여부를 검증하고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의 설명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또래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낙관성의 설명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이 서로 정적인 상관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았다. 낙관성과 안녕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연구들(윤지혜, 이민규, 2007; Charks, Michael, Christopher, & Daniel, 2009; Isaacowitz, 2004; Scheier & Carver, 1985)에서도 이들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희망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안녕감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또래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정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 결과들(양돈규, 임영식, 1998; 이

정미, 이양희, 2007; Cohen & Wills, 1985; Meeus, 1994)과 일치한다. 또한 또래지지와 낙관성과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경아, 정현희, 1999; 한미현, 유안진, 1996; Carver & Scheier, 2002)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다른 모든 변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높은 스트레스는 낮은 또래지지,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으며(Scheier & Carver, 1992),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은 심리적 적응도가 낮아진다(Folkman & Lazarus, 1984)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또래지지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아가 남아에 비해 또래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지지를 느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장영서, 현온강, 1998; Furman & Buhrmester, 1992; Hunter & Youniss, 1982)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Zahn-Waxler et al., 2005; Mash & Wolfe, 2008, 재인용)는 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모관련 스트레스,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에서는 유의미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이소은, 2005; 한미현, 유안진, 1996), 낙관성(양돈규, 임영식, 1998), 주관적 안녕감(홍승표, 2010; Csikszentmihalyi & Hunter, 2003; Diener, 1984)에

서 여아와 남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선행 결과들과 일치한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는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이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받는 영향력이 낮다는 Diener(1984) 주장에 부합된다. 그러나 또래에게 지지 받는 정도에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최은주, 고승민, 황은혜, 2009)는 연구와, 여아가 남아보다 더욱 높은 안녕감을 나타내고(김연화, 2007; Wood, Rhodes, & Whelan, 1989)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Brown, Cowne, Hightower, & Lotyczewski, 1996)는 연구들도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낙관성과 또래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낙관성과 관련하여, 낙관적인 사람이 더 행복한 경향을 보인다는 Seligman(1991)과 낙관성은 삶의 만족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Isaacowitz(2004), Vittorio 등(2009), 낙관성이 유의미하게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정과 이희경(2006)의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다. 또래지지 역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친구와 더 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심리적 고통감을 덜 느끼고 더 높은 긍정적 정서를 유지한다(Cohen & Wills, 1985; Naomi, Dianne, & Thomas, 2010)는 연구와 일관된다. 또한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Meeus(199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하여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가정스트레

스 순으로 아동의 안녕감을 저해한다는 고재홍과 김미정(2009)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와 같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또래지지와는 달리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결과는 아동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부모관련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고,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래가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으로 대두된다는 (Feiring & Lewis, 1989)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아동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확대되며, 아동기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친구관계가 앞으로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정신건강, 행동문제 등의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Hartup, 1993) 측면에서도 이 시기의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수준의 낙관성을 가졌을지라도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면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는 반면,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면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냈다. 즉 낮은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효과는 낙관성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자체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지라도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높다면 낙관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부모관련 스트레

스 감소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또래지지가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수준의 낙관성을 가졌을지라도 높은 또래지지를 지각하면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는 반면, 낮은 또래지지를 지각하면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냈다. 즉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지만 또래지지에 의한 긍정적 영향은 낙관성이 높은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낙관성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던 연구(Naomi, Dianne, & Thomas, 2010)나 안녕감에 대한 낮은 낙관성의 부정적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해 줄 수 있다는 연구(Rebecca et al., 2008)와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낙관성이라는 아동 개인 특성과 함께 아동기에 중요한 환경 관련 변인인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또래지지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내적 차원을 포함하여 부모와 친구라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개인 내적인 요인의 영향에서 사회적 요인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여, 사회적 요인에 대한 개입을 통해 아동의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각각 하나의 개념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중 또래지지라는 세부적인 요소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더욱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낙관성 고/저 수준에 따른 차이를 넘어서서 낙관성이라는 개인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낮추고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아동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위해 부모 및 또래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상호작용 분석이 권장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관련 스트레스 변인과 낙관성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을 낮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 변인의 주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거나 응답자의 반응경향성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을 보완할 수 있는 척도의 사용 등 여러 대안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안녕감과 낙관성은 다차원적인

접근으로써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Diener의 주관적 안녕감과 Scheier와 Carver의 성향적 낙관성에 국한해서 살펴보았다. Ryff와 Keyes의 심리적 안녕감과 Seligman의 낙관적 설명양식의 개념을 포함한 다차원적이고 폭넓은 연구 진행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 또래지지,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성차 결과가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상이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폭넓은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재홍, 김미정 (2009).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방어기제들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2(4). 161-183.
-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민정, 이희경 (2006).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498-499.
- 김연화 (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주용, 이지연 (2007).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115-136.
- 도인중, 이양희 (2008). 초등학생의 낙관적 설명양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지. 11. 97-109.
- 류수영 (1994).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민하영, 유안진 (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박병기, 송정화 (2007). 주관적 안녕의 2×3 다차원 요인구조. 교육심리연구. 21(3). 591-611.
- 박병기, 홍승표 (2004).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3). 159-175.
- 박성연, 강지훈 (2005). 남·여 아동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6(1). 1-14.
- 보건복지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총괄판. 보건복지부.
- 양돈규 (2001). 지각된 사회적지지, 낙관성 및 해슬 간의 상관성. 한국청소년학회지. 8(1). 1-23.
- 양돈규, 임영식 (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55-74.
- 윤지혜, 이민규 (2007). 낙관성이 우울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대처 양식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62-263.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경아, 정현희 (1999).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

- 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2). 213-226.
- 이소은 (2005). 부모의 장애유무와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원 지각과 학교적응. 한국아동권리학회지. 9(2). 249-275.
-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3-58.
- 장영서, 현온강 (1998).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본 아동기의 사회적지지. 대한가정학회지. 36(3). 191-206.
- 천민필 (1994).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최은주, 고승민, 황은혜 (2009).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한부모동거가족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부산시 동구지역 초등학교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문연구지) 동광. (105). 217-278.
- 최창호 (1993).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주리, 허경호 (2005).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능력, 내외통제성, 충동성, 낙관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28. 251-293.
- 홍승표 (2010). 영재·잠재영재·일반학생의 학교 소진 경험 및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9(1). 75-96.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exandrova, A. (2005). Subjective well-being and Kahneman's 'o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301-324.
- Barron, K. E., Frazier, P. A., & Tix, A. P.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15-134.
- Brown. L. J. P., Cowen. E. L., Hightower. A. D., & Lotyewski. B. S. (1996). Demographic differences among children in judging and experiencing specific stressful life ev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 339-346.
- Carver, C. S., & Scheier, M. F. (2002). *Optimism*. In Snyder, C. R(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ks, C., Michael, S., Christopher, M., & Daniel, F. (2009).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Eds.). *Oxford library of psycholog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W.,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sikszentmihalyi, M., & Hunter, J. (2003). Happiness in everyday life: The uses of experience sampl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 185-19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6). Works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Macromarketing*. 16(1). 135-136.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426.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n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R. B., Diener, E., & Tamir, M. (2004). The psychology of subjective well-being. *Daedalus*. 133. 18-25.
- Dubow, E., & Ulman, D.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hild Clinical Psychology*. 18. 52-64.
- Elkind, D. (1981). *The Hurried Children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NY: Addison-Wesley.
- Feiring, C., & Lewis, M. (1989). *The social networks of girls and boys from early through middle childhood*. In D. Belle(Eds).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119-150). NY: Wiley.
- Felner, R. D., & Rowleson, R. T. (1989).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 52.
- Folkman, S., & Lazarus, R.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McGraw-Hill.
- Frisch, M. B. (2000). *Improving mental and physical care through of life therapy and assessment*. In E. Diener & D. R. Rathtz (Eds.),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arch (pp. 207-241).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ress.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In B. Laursen (Eds.),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 (pp.3-22). SF: Jossey-Bass.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ss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806-811.
- Isaacowitz, D. M. (2004). The gaze of the optimi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407-415.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 121-140.
- Lempers, J. D., & Clark-Lempers, D. S. (1997). Economic Hardship,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Distress: An Evaluation of a Stress-Distress Mediation Model in Mother-Daughter and Mother-Son Dyads. *Adolescence*. 32(2). 339-356.
- Mash, E. J., & Wolfe, D. A. (2008). *Abnormal Child Psychology* (Eds). Belmont. CA: Wadsworth/Tomson.
- Meeus, W. (1994). *Psychosocial problems and social*

- support in adolescence. In Nestmann & Hurrelmann(Ed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t. NY: de Gruyter.
- Naomi, E., Dianne, L., & Thomas, W. (2010). Optimism,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0. 1274-1284.
- Rebecca, S., Tim, C., Sharla, W. G., Ruth, L., Jamie, S., & Kathryn, T. (2008). Optimism,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in African American women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1. 433-444.
- Ryff, C., D. (1990).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social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3.
- Ryff, C. D., Keyes, C. L. M., & Shmotkin,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and Research*. 16. 201-228.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Simon & Schuster.
- Shrout, P. E., & Dohrenwend, B., P. (1985) "Hassles"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variables. *American Psychologist*. 40(7). 780-785.
- Sydney, E., Wendy, H., Nuttbrock, A. D., Shqwna, P., James, K., Daneen, D., Jay, T., & Robert, C. (2005). A new measure of children's optimism and pessimism: 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5). 548-558.
- Vittorio, C. G., Corrado, F., Guido, A., Patrizia, S., Antonella, G., Cavalli, S. L. L., & Antonietta, S. M. (2009). Human optimal functioning: The genetics of positive orientation towards self, life, and the future. *Behavior Genetics*. 39. 277-284.
- Wood, W., Rhodes, N., & Whelan, M. (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 249-264.
- 1차 원고접수 : 2011. 4. 8
수정원고접수 : 2011. 5. 18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tudents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related Stress and Peer Support

Seul-Kee You

Hee-Jeong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5th and 6th graders' optimism, parents-related stress, peer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442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optimism and peer support, and optimism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peer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On the other hand, parent-related stress and optimism, parent-related stress and peer support, and parent-related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reveal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Second, only peer support revealed any gender differences. Particularly, girls had the ability to perceive higher levels of group support than boys. Third, parent-related stress and peer suppor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subjective well-being, that is, an interaction between optimism and parent-related stress as well as an intreraction between optimism and peer support was seen to be significant.

Key words : children, optimism, parent-related stress, peer support, subjective well-being